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딤후 2:1-2] 내 아들이야,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고 진실한 일꾼들이 부족하므로’라는 뜻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강해져서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은혜이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義)를 굳게 믿고 모든 죄를 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담대히 물리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했다. 그가 바울에게 들은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 즉 그의 기적들,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재림 약속 등에 관한 것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것은 곧 복음에 담긴 내용들이다. 위의 사실들은 ‘많은 증인 앞에서’ 입증된 것들이었다. 기독교는 많은 증인들에 의해 입증된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한다. 그 사실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믿을 만한 것들이다.

기독교는 지어낸 이야기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다. 예수님은 지어낸 인물이 아니다. 만일 그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지 않았고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고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고 40일 후에 승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해 증거되고 순교의 피로 입증된 진리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한다. ‘충성된 사람들’이란 참으로 믿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나 환경여건

에 따라 변하는 자는 충성된 자가 아니다. 충성된 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 진리를 믿고 그대로 행하는 믿을 만한 자이다. 디모데는 자기가 받은 복음을 이런 충성된 자들에게 전수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후시대에 전달되며 계승되는 방식이다. 이것이 참 제자 훈련이며 신학 교육이다. 교회는 이런 계승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 전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받고 배워 자신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경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 즉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3-4절] [그러므로(전통사본)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전통사본에는 없음)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중에서 고전분투하면서 전도의 일을 하였듯이, 디모데도 이제 고난을 감당하며 일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전도는 전쟁에, 그리고 전도자들은 군인에 비유할 수 있다. 마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 사역을 방해하며 전도자들을 핍박한다. 그러므로 전도와 교회 사역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며 수행해야 할 일이다. 전도자들은 군인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인들은 평소에 훈련에 참여하고 비상이 걸리면 언제나 출동하고 언제나

전쟁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들은 몸이 피곤하다거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을 부른 국가를 위해 충성해야 한다. 그들의 충성된 행위와 수고 때문에 국민들은 밤에도 평안히 쉬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 물론 전도자들이 자기들의 집을 내버리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 무관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들의 집을 돌보는 것도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무엇보다 주의 일이 첫째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5-6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에 비교한다. 선수는 규칙들을 지키며 경기해야 한다. 달리기 선수는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축구 선수는 손으로 공을 만지거나 상대방 선수의 발을 걸거나 차거나 하는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선수들은 반드시 경기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사도 바울은 또 복음 사역자들을 농부들에 비교한다. 농사는 부지런함과 땅 흘리는 수고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땅을 일구어 고르게 하고 그 위에 씨를 뿌리고 적당하게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막아내고 마침내 잘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기까지 부지런히 수고하고 피약별에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농사일이다. 농부들이 이런 수고를 했을 때 곡식을 거두는 기쁨과 복을 누릴 것이다.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성경에 교훈된 규칙대로 행해야 하고, 부지런하게 또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한다.

[7-9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법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시기를 원하노라(전통사본).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전도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증거된 바이다. 예수께서는 비록 육신적으로가

아니고 오직 법적으로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는 참된 인성을 소유하셨고 그 인성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그는 고난 받는 그의 모든 제자들의 본이 되셨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와 같이, 복음 사역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일하고 있지만, 그 결말은 복된 승리일 것이다. 그들은 복되고 영광스런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받았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간혀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는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제국은 삼백년이 되지 않아서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를 공인하였다. 그 동안 진실한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켜 왔다. 과거에 일본 군국주의의 기독교 핍박이나 그 후 공산주의의 기독교 탄압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어둘 수 없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자유의 복음이며 그 무엇도 그 자유의 복음을 매어둘 수 없었고 또 앞으로도 매어둘 수 없을 것이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참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그를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이다.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영원한 영광’을 동반하는 구원임을 뜻한다. 구원은 영광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은 죄가 전혀 없고 의만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며(벧후 3:13),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이다(롬 8:18).

[11-13절] 미쁘다, 이 말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함 미쁨시니(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을 만하지만 이 말씀은 더

육 믿을 만한 말씀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0:33).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진실하시며 신실하시고 언제나 믿을 만하시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그들이 받는 고난의 결과로 택한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은 영원하며 영광스럽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고 믿을 만한 약속의 말씀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성과 세상의 죄악된 풍조들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야 한다. 고린도전서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린도전서 16:13,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 자답게 강건하여라.” 에베소서 6:1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둘째로, 우리는 성경적 사도적 복음 진리와 교훈들의 계대(繼代)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파악하고 보수하고 후대에 전수해야 한다. 우리의 바른 교훈 전수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주일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충성된 청년들을 불러 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그것이 참된 제자 훈련이며 실상 그것이 바른 신학 교육의 일이다.

셋째로, 주의 종들과 교회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시인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주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면 주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고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주의 종들과 교회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기를 사모하며 주를 위해 고난도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분향단, 물두멍, 관유, 향

[출 30:1-5]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 계속 지시하셨다. 그는 분향할 단(분향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모세는 그것을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약 45센티미터), 너비가 1규빗(약 45센티미터), 높이가 2규빗(약 90센티미터)이 되게 하며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 붙이고 다 금으로 싸야 했다.

[6-10절] 그 단을 증거케 위 속죄소 맞은편

모세는 그 분향단을 증거케 뚜껑인 속죄소의 맞은편 곧 증거케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어야 했다. 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만나실 곳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유화(有和)[속죄]의 향을 사르되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에와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라야 했다. 분향단 위에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곡물제사)를 드리지도 말고 전제(奠祭)의 술을 붓지도 말아야 했다.

[11-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 .

생명의 속전(贖錢)에 대한 규정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인구 조사를 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이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되 계수 중에 드는 20세 이상된 모든 사람이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내야 했다. 성소의 세겔은 1세겔은 약 10그램이다.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야 했다. 그 생명의 속전은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이므로 그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의 생명 연장과 수적 증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17-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물두멍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물두멍’은 ‘큰 물통’을 가리킨다. 모세는 그것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것을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야 했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에나 화제(火祭)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 먼저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

[22-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또 관유를 만드는 법을 지시하셨다. 모세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액체 몰약(myrrh) 500세겔 즉 약 5킬로그램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cinnamon) 250세겔 즉 약 2.5킬로그램과 향기로운 창포(cane) 250세겔 즉 약 2.5킬로그램과 계피(cassia) 500세겔 즉 약 5킬로그램과 감

람(올리브, olive) 기름 한 힌 즉 약 4킬로그램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어야 했다.

[26-33절]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또 모세에게 그 관유를 성막과 그 기구들에게 바르라고 지시하셨다. 모세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야 했다. ‘끊어진다’는 말은 출교나 사형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하여 죽이심(레 20:3) 등을 가리킨다고 본다.

[34-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重數)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 .

여호와께서는 또 모세에게 향을 만드는 법을 지시하셨다. 모세는 소합향(stacte)과 나감향(onycha)과 풍자향(galbanum)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francincense)에 섞되 각기 동일한 무게로 섞고 그것으로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들어야 했다. 이 향은 곱게 찢어서 얼마를 회막 안 증거궤 앞(아마 휘장 밖)에 두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향을 만들지 말아야 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상징한다고 본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시며(롬 8:34; 히 7:25)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죄의 고백, 선한 소원의 간구를 아뢰어야 한다. 시편 141: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요한계시록 5:8,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3-4도 참고.

둘째로, 생명의 속전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된 자들은 다 생명의 속전으로 반 세겔씩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그것은 회막 봉사에 사용되었다. 우리는 죽어 지옥에 던지워

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 얻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전 6:19-20).

셋째로, 물두멍, 즉 큰 물통은 제사장들에게 성결함이 필요함을 보인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악과 더러움이 없으시다(히 7:26). ‘왕 같은 제사장들’(벤전 2:9)이 된 신약 성도들은 손과 발을 향으로 씻어 깨끗케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벤전 2:5).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수요일 설교 귀머거리들아, 소경들아

[사 42:14-25] 내가 오래 동안 고요히 하며 . . .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의 강림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인류의 구원을 예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선포하셨다(6절). 하나님의 구원 소식은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서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선포되었고 시작되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귀머거리들이며 소경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었다. 이것은 사람의 죄악됨,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증거한다. 사람은 심히 무지하고 무감각하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복된 신앙고백을 하게 하셨다(마 16:17). 주님께서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전도의 말을 듣게 하셨다(행 16:14).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후 4:6).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길로 행치 않은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로마서 6:2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거룩과 의를 실천해야 한다.

- 김효성, **조직신학**, 2판, 627쪽.
- 김효성, **로마서 강해**, 3판, 145쪽.
-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10판, 96쪽.